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스바니아 3, 14-18	제2독서	필리피서 4, 4-7	복음	루카 3, 10-18
--------	------	------------------	------	----------------	----	----------------

**“만족” 과 “감사”**

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에 따라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많은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이익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혹은 사회적 지위와 직급에 따라 이익은 차등 배분되고, 이런 형태의 차등 분배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격차, 곧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격차는 구성원들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게 합니다. 적절한 사회적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자기 발전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요. 그리고 이런 자기 발전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격차라는 것이 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는 구성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절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진보가 아닌 퇴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동기부여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서로의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아닌 무한 경쟁으로 피로한 세상, 시기와 질투, 편법과 부정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적절한 사회적 격차 안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격차 안에서 절망과 좌절이 존재하며, 무한 경쟁, 시기와 질투,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피로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읽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후자에 가까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은 이 회칙에서 “공동의 집 지구”가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이로부터 생겨나는 끝없는 소비와 버리는 문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끝없는 자기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비교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차이”가 결국 “차별”과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참된 행복을 꿈꾸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더 요구하지 마라” “만족하여라.” 이런 요한의 이야기가 내포하는 의미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과 “감사” 어쩌면 이 둘은 우리 사회 안에서 생겨나는 “차이”를 “차별”과 “불이익”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연결하는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마련했던 요한은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12월 17일(화)	12월 17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 1,285.00
			교 무 금	\$ 3,955.00
12월 18일(수)	12월 18일	오전 8시	성 물 방	\$ 695.00
			자 선 비	\$ 260.00
12월 19일(목)	12월 19일	오후 7시30분	성소후원	\$ 330.00
			도네이션	\$ 1,050.00
12월 20일(금)	12월 20일	오전 10시	미사예물	\$ 1,520.00
12월 21일(토)	12월 21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9,095.00
12월 22일(주일)	<b>대림 제4주일</b>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13명 성인: 151명
교무금 봉헌자	안성수,금외주,안강순,김이진(11-12)김승제,서RYAN(,이서향10-12)정두용,임채봉,전정옥(9-12)김채홍(6-12)권영일, 이재덕,김평옥,조영숙 (12)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가 중요하다든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기도 자세에 대해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기도할 때에 우선으로 요청되는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위에 둡니다. 자신의 뜻을 하느님 뜻에 맞추고자 합니다. 또 자신의 뜻을 하느님 뜻에 맞추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며 "기도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가르칩니다( 2559항).

기도할 때에 요청되는 또 한 가지 기본 자세는 신뢰, 곧 **믿음**입니다. 신뢰 역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마르 11, 18)."

기도할 때에 믿음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간절함과 끈기**입니다. 루카 복음에 나오는 '친구의 청을 들어 주는 사람의 비유' (11, 5-8)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18, 1-8)는 기도에서 간절함과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드리신 두 편의 기도에 관해 언급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기도(마태 11, 25-27; 루카 10, 21-22)이고, 둘째 기도는 라자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 바친 기도(요한 11, 41-42)입니다.

이 두 편의 기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기도 모두 감사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603항).

둘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신 후에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청하고 계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며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제시합니다. 곧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과 함께 당신 자신도 주시는 분(하느님 아버지)과 일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얻고자 하는 기도의 선물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바치신 두 편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점입니다.

( 평화방송 이창훈 기자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사무장 201-774-7489/전례부장 916-990-6531)◎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유희 밀지다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아들 Shawn Hovey 영육건강	김평옥 모니카
연	김병길 베드로 영혼	김명희 수산나 가족	생	Shawn Hovey, 감숙남 로사 영육건강	익명
연	전흥주 특인 베드로의 영혼	박니콜, 박수옥 글라라	생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리오 영육건강	익명
연	이옥련 마리아 영혼	사도들의 모후 Pr.	생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리오 영육건강	6구역
연	이옥련 마리아 영혼	이서향 미카엘라	생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리오 영육건강	이영숙 데레사
연	이옥련 마리아 영혼	유정임 가브리엘라	생	본당 신부님의 영육건강	안선미 미카엘라
연	이옥련 마리아 영혼	곽유경 데레사	생	이민자, 원희정, 김정홍, 송돈희, 지복원 영육건강	연령회
연	이옥련 마리아 영혼	아빌라 데레사회	생	윤비비안나 영육 건강	윤재경 알베르토
연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혼	이종만 모세가정	생	이종만 모세 영육건강	이영숙 데레사
연	김수용 형제님 영혼	차영미 카타리나	생	김헬레나, 김채홍 대부모님의 영육건강	전율리아
연	윤기창 프란치스코, 우복덕 영혼	윤수용 토마스	생	전정만 야곱가정 영육건강	전율리아
연	이정광 요셉 형제님 영혼	사도들의 모후 Pr.	생	전율리안나 가족 영육건강	전율리아
			생	국부자 마리아 생신 축하	강정자 클라라
			생	이종만 모세 영명 축일	장호길 요한비안네
생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리오 영육건강	박원상 토마스 가정	생	김로사 영육 건강	성모회
생	이종만 모세 생일 축하	임그라시아	생	고공자 벨라벳다 영육건강	장경숙 로사리아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성탄 판공성사 안내  
대림시기(12/1~12/22) 동안 미사30분전에 볼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분들과 함께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표는 게시판 아래 비치)
2. 혼인 갱신식  
일시 : 29일 (주일) 교중미사 중 (반지 지참요)  
서약서는 당일 주보 2면을 참조바랍니다.
3. 2025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 각 부서 부장님과 단체장님  
일시 : 12월 29일 (주일) 까지 총무부장께 제출
4. 유아세례 신청 받습니다  
일시: 25일(수) 오전11시 성탄 낮미사중  
문의: 사무실/전례부장 신청서:사무실
5. 교구 2차 헌금  
일시: 15일(주일) 모든 미사  
목적 :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6. 본당 꾸리아 평의회  
일시: 15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모든 뵈레시디움 4간부 참석 바랍니다.
7. 구역모임 및 단체활동  
6구역: 15일(주일) 오후5시 이종만 모세(떡)  
9구역: 15일(주일) 사랑의급식 후 친교실  
10구역: 22일(주일) 교중미사후 마태오방  
울드레야: 21일(토) 오후6시. 서주연 마리아 (자택)
8. 성탄시기 미사시간 안내  
24일(화) 저녁 8시 주님성탄대축일 밤미사  
25일(수) 오전11시 주님성탄대축일 낮미사  
31일(화) 저녁 7시 30분 송년미사  
1월1일(수)오전11시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  
이날은 주일과 같이 지켜야하는 의무대축일입니다.
9. 사랑의 급식 (9구역)  
일시: 15일(주일) 메뉴: 황태콩나물(\$5)

10. 성탄맞이 본당 대청소  
15일(주일)까지 담당 구역별 청소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구역: 게시판 참조)
11. 사목회, 구역장, 단체장 송년회  
일시 : 12월 27일 (금) 5시 30분  
장소 : 친교실
12. 성탄절 영화 상영  
영화 : 마리아  
일시 : 12월 24일 (화) 6시  
장소 : 엘리사벳 방
13. 2024 성탄제 참가 신청 (접수중)  
행사일시:25일(수) 성탄 낮미사 직후 친교실  
각 구역 및 단체별로 신청 바랍니다.  
문의: 부회장 장현철 엘리야
14.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이정광 요셉 형제님 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도와 장례미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 24년도 교무금 완납을 부탁드립니다.  
교무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성당 유지/보수/발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2025년도 달력 배부합니다 (사무실)
17. 2025년도 주보광고(1년간) 신청  
금액: \$150(소), \$300(대)
19. 감사합니다  
장례미사: \$200 (이서향 미카엘라)  
달력/주보광고: \$150 (HAIR STORY)
20. Donation Statement 발급 (사무실)  
2024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화답송



기뻐하며 외치라 이스라엘 의거복 하신분 너희 가운데 계신분은 위대 하시다

전례봉사	대림제3주일 (12/15)	대림제4주일 (12/22)	성가정 축일 (12/29)	주님 공현 대축일 (1/5)	
미사해설	오민정 / 이해련	김아영 / 최금주	박문교 / 정미정	오민정 / 김진영	
독서	9시	허준희 / 김가윤	박예린 / 김주영	제임스 권/ 라파엘 가르시아	오은수 / 지종원
	11시	전우성 / 전병욱	구준모 / 박수옥	지영욱 / 지정숙	김귀태 / 김은영
복사	9시	황건영 / 곽아인	지마리 / 박예진	장현철	임가빈 / 지마리
	11시	최준우 / 권오승	곽유경 / 윤지현	장현철 / 송돈희	최준우 / 김승제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 모후Pr.	셋별Pr.	천상의 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김나윤 프리스카(201-774-7489) E-Mail:prisca0118kim@gmail.com

###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 최병업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업(바오로)  
916-363-2345

###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부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sup>th</sup> Street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